

앞으로도 환경전문서적만 다룰 터

■ 편집부

기자가 서부역 뒤에 자리잡은 녹원출판사를 찾았을 때, 편집실은 신학기 교재 출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전부터 안면이 있는 편집주간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기자를 맞아 손수 사장실로 안내한다.

잘 표구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와 인공위성이 잡은 한반도의 대형 천연색 사진으로 장식된 사장실에서 徐永斗 사장은 「대학연감」을 뒤적이고 있었다. 넓은 편집실과 뜨겁게 타고있는 난로, 차분한 사장실에서 어떤 여유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서와요.李 회장님도 안녕하시고? 참 지난 호 「환경관리인」 회보 잘 만들었더군요. 애쓴 흔적이 곳곳에서 보여요.”

출판전문인인요, 출판 대선배이신 서사장님의 이런 과분한 칭찬을 받고 기자는 미소로 부끄러움을 얼버무렸다. 고향의 큰오빠를 대하는 훈훈한 분위기속에서 따뜻한 커피를 들며, 녹원의 뒤안을 산책해 보았다.

▲출판사 사훈과 사장님의 좌우명을 알고 싶군요?

●굳이 사훈이란 것은 없어요. 웬지 규격화된 것 같아서 사훈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꼭 대답해야 한다면 내 좌우명이기도 한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 정도일까. 가정과 직장, 크게는 사회와 국가에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 몫은 하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비극이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인물이지. 환경용어로 표현한다면 「인간 쓰레기」라고나 할까?

난 집 애들에게도 커서 뭐가 되라고 하진 않아요.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든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여러 분야를 놔두고, 왜 외곬수로 환경분야 서적만을 출판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군요. 사회과학이나 문학서적 등 단행본을 출판하는 회사는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꾸 질문을 던지니 웬지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군. (하며 담배에 불을 붙이신다) ...나 담배 한 대 피워도 되지? 워낙 체인스모커라서. '70년대 말 출판을 시작할 때 친구들이 많이 출판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단행본 분야에 뛰어들었다가는 주위의 좋은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하겠더군요. 그래서 환경분야를 취급했지. 돌이켜 보면 그때 「환경」이니「공해」니 하던 용어도 생소한 시절이었어.

대학 시절 경영과 목회학을 전공했던 나는 인간경영과 인간환경이란 걸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인간경영이고, 인간으로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이 인간환경이지. 지금은 환경이란 용어가 공업적인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 사회과학적인 측면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환경, 경제환경, 민주환경 등등으로.

▲지금까지 많은 환경관계 서적을 출판하셨는데 자랑하고 싶든가 특히 애착이 가는 책을 소개하신다면?

●우리 녹원출판사에서 출판한 책 모두가 내 분신과 같아요. 그리고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출판한 책들이고요. 여러 아들 중에 누가 제일 귀엽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 같구만. 애착이 간다기보다 독자를 위해 권하고 싶은 책이라면 교재쪽으로는 김동민 박사, 김수생 박사, 신석봉 박사님 등이 쓴 책이 좋겠지요. 일반인의 개론서로는 환경교육회 박창모 선생이 쓴 책을 권하고 싶어요.

아까 말한 생활환경이란 측면에서 출간한 노용희



『환경과 도시』, 황용주 박사의 『도시계획원론』도 이 분야에서는 드물게 보는 역저예요. 뭐, 다 좋은 책이지요.

『욕심이 많으시군요? 물론 환경분야 출판에선 우

뚝 서 계시지만...



『욕심? 역시 좋은거지. 나쁘게 작용하면 자신을 망치지만 잘만 활용되면 발전의 모체이니까. 적어도 환경분야, 공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측면에서도 욕심을 부리고 싶어요.

저희 연합회에도 환경도서 구입에 대한 문의가 가끔 오는데, 특히 지방의 경우 구입하기 매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유통구조와 지방의 독자나 환경기사들이 손쉽게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획같은 것이 있으시면.....

아직은 환경분야의 책을 보는 독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가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경기사 역시 아직은 책을 보는데 적극적이지 못해요. 거기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때문인 것 같아요. 발전과 공해의 상관관계에서 아직까지 발전쪽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형편이고, 힘들어 대학에서 공부한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우리 여건에서 그만큼 환경기사들도 의욕을 잃어 새 기술이나 공법습득에 소극적이고, 또 환경문제가 아직까지 개인들은(작업환경이 나쁜 현장 생산근로자나 환경관계인 외의 개인: 편집자 주) 환경공해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어서 환경에 별 관심이 없다보니 가수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서 유통구조상 저희도 어려움이 많아요. 책의 특수성 때문에 학과가 있는 대학구내서 점이나 대도시 기술서적 취급서점에만 공급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하여 지방의 환경관계인과 독자들

에게 미안케 생각해요.

앞으로 좀더 환경이란 용어가 확대·일반화되면 전국적인 공급을 할 계획은 세워놓고 있어요.

▲ 앞으로의 비전은?

● 지적 소유권 문제가 있어 선진기술이나 공법을 소개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 봐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머잖아 환경관계인이 빛을 볼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형편이 굵지 않아야 한다는 상황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단계에까지 우리 경제가 와 있으니까요. ● 끝으로 저희 환경관리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는?

※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법규와 회사사정의 틈바퀴에서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주어진 여건에서 조화를 이루며, 개척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이겨 나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개척자에겐 의례히 그런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며, 그 댓가는 반드시 얻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한 길을 살다간 사람입니다. 인간·학문·기술적으로 자신을 키워가는데 게으름이 없어야 하겠지요. 그건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도 중요하니까요.

▲ 장시간 고마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자는 사장님의 대답을 마치고 사장실을 나와 편집주간에게 회사연혁을 물었다.

1979년 우일문화사에서부터 출판계 일을 시작, 출판에 관여해 오다가 1984년 산업공해연구소, 월간지 『공해대책』을 인수합병 녹원출판사로 상호를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환경전문서적만 다룰 터」라던 徐사장님의 말을 다시 생각하며 옆 현대칼라 본점에 세워둔 차에 올랐다.

